

#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방향 논의

### 시, 타 축제와 차별성 확보 위한 추진위원회 열어... 길거리형 운영 등 제시

군산시는 27일 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축제의 추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민간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시간여행축제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간여행 추진방향 보고에서는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길거리형 축제 운영 ▲주행사장 대표관광지 연계 플랫폼 운영 ▲시민 주도형 축제 콘텐츠 운영 확대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길거리형 축제 운영을 살펴보면, 시간여행마을(월명동) 구영길과 6길, 중앙로를 봉쇄하여 축제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주행사장 대표관광지 연계플랫폼 운영과 관련 선유도경암철길,은파호수공원 등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광역화를 추진한다.

이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학생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 공모로 시민 주도형 축제 콘텐츠 운영을 확대한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의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벽화 정비 및 관광객 쉼터 조성, 포토존 조성, 시간여행 콘셉트의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향후 시간여행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축제 프로그램의 심층 발전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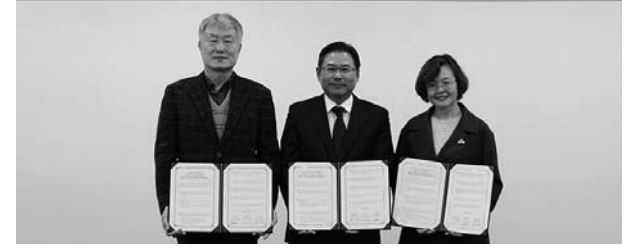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요즘 군산이 현대중공업과 한국GM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콘텐트를 통해 군산의 관광트렌드를 확실히 부각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



군산시는 27일 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축제의 추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학술연구 교류협력(MOU) 체결



### 학술·연구 등 지역학 관련 교류 추진 원광대-강원학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과 익산학연구소,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소가 전국 지역학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강원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공동 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학술자료·출판물·지식정보·인적자원 교류, 공동 캠페인, 교육·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광대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과 익산학연구소는 지역학 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학술자료·출판물·지식정보·인적자원 교류, 공동 캠페인, 교육·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지역학 연구기관 모임인 '한국지역학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원광대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과 익산학연구소는 2017년 익산학연구소 설립에 이어 총 세 차례의 익산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학과 관련된 다양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8학년도 2학기부터는 익산학 교양교과목(익산 도시와 시문학)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신규정책·국가예산 사업 제안 시정 발전 도모

### 제2기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출범

익산시는 지난 28일 ~27일 양일간 정책기획단 40명과 정현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익산시 정책기획단은 친취직 사교와 열정이 넘치는 2030 공무원과 멘토 역할의 4060 선배공무원이 상호 학습을 통해 정책 감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규정책과 국가예산 사업을 제안해 익산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미래 익산의 주역인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획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9개월간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정책기획단 지원부서인 조창구 기획예산과장은 "지난 해 제1기에 이어 제2기 정책기획단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공직자의 소속감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의 전국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인구증가 실행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철모 부시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국·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 실행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연도별 인구추이와 그간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 원인 및 문제점과 대책 등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시행중인 66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시는 정현을 시장의 지휘 하에 2017년을 인구정책 원년으로 삼고 온 행정력을 집중해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지난해 30만 유지에 성공했으나 2018년 들어 천연염색이 감소하는 등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장들의 힘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특히 2018년 집중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토대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도 익산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주소전입 대학생 학자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및 영유아 보전 사업 확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며,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용역과 시민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상의 임원선출 임시의원총회... 김동수 회장 만장일치 추대

군산상공회의소는 27일 지난 2월 21일 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23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상의 회의실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군산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김동수(63)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부회장을 김시명, 상임의원 22명 등 총 35명의 임원진을 선출·구성했다.

김동수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한국자본 군산공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모든 상공인이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절박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군산상의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노사화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화합하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경기회복에 노력할 것과 각종 지역 현안해결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익산시,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설명회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농업회의소 설립 T/F팀이 주축이 되어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함열읍과 왕궁면을 시작으로 총 10일간 익산시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총 10일간 오전(10:00~11:20), 오후(14:00~15:20)로 나누어 하루에 2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관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히 순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현장의 농업인과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농민연대, 봉화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농업회의소의 개념부터 역할 향후 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농업회의소 이해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업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농정이 대두되어야 할 시점임을 감안해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권

위를 향상시키고 이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 설립이 대안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T/F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이 주도해 온 농업정책을 현장의 농업인이 참여해 농업인의 회의에 가입해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소비자 등 비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현재 운영 중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농협 상생협력단 등이 함께하는 농정계의 권익 및 실익을 대변하는 민간자를 대의기구로서 농업인이 직접 농정 참여해 농업관련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 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회원 1,000명을 목표로 2019년 3월 설립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